

움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옵가-

옵기 42:1-9, 로마서 3:19-24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문제와 갈등에 대한 해답과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음으로 현장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이권과 타락으로, 점술과 우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거기 답을 주는 소명과 천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옵기 이해를 위한 개관

(1) 옵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오늘은 옵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옵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는, 약간 아브라함보다 후대라고 본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옵을 우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옵1:1). 당시 지명은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만아들의 이름이 우스였다(창22:21). 그렇다면 우스 지역에 살았던 옵은 나홀의 아들 우스의 이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사해 동남쪽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다. 옵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방은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동쪽이다. 옵은 여기에서 아브라함보다 약간 뒤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 있느냐 하고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직계는 아니지만,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나름대로 믿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었는데, 그 중 특히 야곱의 후손들만 애굽으로 갔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을 때,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옵과 그의 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옵이 받은 고난

옵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두 배를 넘어서 백 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작품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기고 즐겨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라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다. 옵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 후대와 함께 포용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옵이 고난을 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친구들이 옵을 만나러 와서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같이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함께 슬퍼했겠는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 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떤가. 친구 뿐 아니라 많은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바울은 목숨과 바랄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양육하여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옵이 받은 고난의 기간은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거는 다음과 같다. 70인 역 성경의 각주에 옵이 240년을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 고난 받은 후에 140년을 살다가 4대의 후손을 보고 죽었다고 했다. 모든 축복을 두 배로 받았는데, 수명도 두 배였을 것이라고 보면, 고난 이전까지 살았던 70년의 생애도 두 배로 돌려받았다고 보인다. 그래서 140년과 70년을 더하면 210년인데, 240년의 수명을 보면 30년의 공백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난의 기간으로 본다. 여러분, 6개월 고난 당하고 두 배로 축복받는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30년 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어거스틴은 옵의 부인을 사단의 수종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옵은 재산도 다 잃었고, 자기가 힘들게 낳은 자녀 10명도 한꺼번에 죽었다. 옵은 병들었다. 그러니 옵의 부인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옵의 병수발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옵에게 축복을 회복시키실 때 옵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하셨지만, 옵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으셨다. 이것은 옵의 아내의 불평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고난을 당하는 옵 (옵1~3장)

옵기 1, 2장은 의로운 옵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으로 인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장면이다. 천국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옵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옵은 자신의 출생을 비판한다. 이것이 3장이다. 어떤 설교자는 ‘옵이 하나님

을 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부모님이 계신데, 아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는가? 직접적인 원망보다 기분이 더 나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 불 때는 옵이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 불 때는 옵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옵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할 수 있다.

2. 옵의 세 친구와 옵의 논쟁 (옵4~31장)

4장부터는, 옵을 위로하러 찾아온 옵의 세 친구,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옵이 격렬히 논쟁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 친구의 논지는, 옵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옵의 죄 때문이니, 당장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옵은,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이유없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항변한다.

(1) 엘리바스와 옵의 논쟁

옵이 탄식하며 자신의 출생을 비판하자, 옵4장부터는 엘리바스가 주장한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너의 죄 때문이다.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그런 요지의 주장이다. 옵4:7을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 엘리바스는 한술 더 떠서 옵의 믿음의 수준을 의심하고 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열이 받는다. 잘난척 하면 힘듭니다. ‘내가 너의 입장이려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위로인지 스트레스인지 알 수가 없다. 옵이 이때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다. (웃음) 가만히 뒹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친구의 도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간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엘리바스는, ‘나라면 잘난 척 하지 않고 회개하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옵이 대답한다.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주어진 것이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옵6:9-10을 보라. “⁹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다. ¹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 아브라함과 믿음을 공유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친구들의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한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이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 때에는 그런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 옵의 친구들은 옵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이고 종교고 율법이다. 도덕이다. 옵6:25을 보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옳은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란다.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란다. 옳은 말, 지적하는 말은 쉽지만, 살리는 말을 하려면 열 배의 성령충만이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의 힘이 필요하다.

(2) 빌닷과 옵의 논쟁

옵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아 사람 빌닷은, ‘네가 고난당하고 네 자녀가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만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까지 욕하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옵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못할까 싶어서 제사까지 매일 지냈는데 벌 받아서 죽었다고 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가. 옵8:4을 보라.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무 화가 나지 않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이 나온다. 이 요절이 좋은 환경과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옵8:7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옵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빌닷이 옵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어찌 보면 옵과 그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이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이다. 너무 옳은 말이지만, 옵이 들어서 기분 좋을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모든 식당에 이게 붙어있다. (웃음)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가서 옳은 말을 하면 또 안 된다. (웃음) “이거 원래 안 좋은 말이에요, 폐세요!” 그러지 마라. (웃음) 좋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설명해 주면 된다. 이것은 빌닷이 옵을 훈계한 장면인데,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해 줄 것이다, 왜 고집을 피우느냐” 한다. 옵은 대답한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느냐. 누가 옳은지 재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재판할 수 없지 않느냐.” 너무 속상하니까 옵의 속마음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면서 옵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한다. 그것이 옵10:1이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나, 인간인 옵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¹ 내 영혼이

살기에 준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²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 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³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죄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⁵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고 ⁶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⁷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까. ⁸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니 보라. 욥이 불평을 했다 안 했다. 불평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못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문제도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 서밋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실패도 과정이 되어 누러지게 된다.

(3) 소발과 욥의 논쟁

욥11장부터는 나야마 사람 소발의 말이 나온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고 꾸짖고 있다. 내가 참 억울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옆에서 “야,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 짜증이 나지 않겠다.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될 텐데. 물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들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소발은 욥을 비난하는 것이다. 욥11:2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면 할 말도 없지 않다. 말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발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논지로 반박하고 있다. 욥11:14을 보라.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위로인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결국 화가 나서 반박한다. 너희만 똑똑하고 잘났느냐, 너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나도 다 아는 내용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욥12:3을 보라.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13:2을 보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싸움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감정으로 가니까 무식한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31장까지 가게 된다.

3. 엘리후의 개입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젊은 램넛트, 엘리후였다. 엘리후는 열정이 있었다. 욥이나 친구들이 화내는 것과는 달랐다.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니깐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리지만 끼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끼어들게 된다.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을 듣고 욥이 강하게 반박하며 나서자, 엘리후가 여기에 끼어든 것이다. 욥32:1-5을 보라. ¹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² 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³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 ⁵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더 큰 잘못이라고 본다. 램넛트 엘리후는 기성세대의 한계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다. 그 엘리후의 주장은 32-37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토론한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것이다. 실력있고 힘 있는 램넛트가 일어나면 모든 주장과 대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램넛트가 이런 램넛트가 되시기를 바란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것이다. 우리 램넛트가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4. 하나님의 말씀

욥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논지는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비겁한 방법을 쓰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당신이 사단을 통해서 시켰다는 내용은 없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하고 힐난하시는 것이다. 한 마디라도, ‘미안하다, 사실 나의 깊은 뜻이 있었다’ 하셔야 할 텐데, 아예 시치미를 떼시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서 70가지의 천지창조의 비밀을 이야기하신다. 천문학, 생물학, 모든 학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김정은이 밀의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 설명하면서 하겠는가? 세상 권위도 그렇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가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어려움과 문제가 왔더라도, 그래서 불평할 수 있을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5. 욥의 회복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셨고,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며, 모든 것을 결국 두 배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자질구레한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 설명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 그것이 욥38-42장의 70여 가지 질문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욥은 축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1:1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욥에서 빙하시대에 대한 근거를 찾아낸다. 거기에 공룡도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공룡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일부 곤충에게 남아있는 기능이라는 점을 들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자도 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결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이 있다.

- (1) 욥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욥이 죄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계속 읽고 보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신 것이다.
- (2) 욥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욥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친구들에게, 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친구의 잘못에 대해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이 욥이다. 당사가 모세 이전의 제사장이 없는 시대로서 족장이 직접 제사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욥이 제사를 직접 지냈던 것이다.
- (3) 욥의 친구들은 인간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신학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복음과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했다.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죄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 내가 실천하고 사랑해야 한다.
- (4) 욥은 세상적으로 완벽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몰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 (5)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그때 욥처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멋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되시기를 바란다.
- (6)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써 뚜렷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욥42:5을 보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과거에도 믿음이 좋았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삼성과 모성을 두고 전에는 7개의 별로 생각했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수백 개의 별이 모여있는 성단이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욥기에 다 들어있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을 초월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 (7) 램넛트들은 엘리후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신학자는 욥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엘리후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어떤 사람은 욥, 어떤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욥기의 내용을 점토판에 기록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있다(욥19:23-24).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형태로 칠필로 토판에 기록했던 내용이, 후대에 이어져서 욥기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엘리후는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램넛트였다. 어른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램넛트였다. 모든 성도와 램넛트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 하고,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시며, 내가 붙잡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지역, 민족, 세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